

안무가 육성, 교육과 국제교류 통한 경쟁력 배양해야

장 광 열 · 무용평론가 | 한국춤 정책연구소장

무

용 분야 예술정책 추진 성과와 문제점

정부의 예술정책이 각 장르별로 분화되어 공식 발표된 예는 없었다. 공연예술 부문을 통털어 일괄 시행되다보니 무용 부문의 환경적인 변화를 정확히 진단하고 예측한, 보다 전문화·세분화된 정책 입안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특정 부문의 관심을 확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예술의 해〉 사업이 추진된 적도 있었으나 대부분 행사성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그런 와중에도 그동안 정부의 문화정책은 몇 가지 부문에서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얻기도 했다.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고양시키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해 온 무대예술 지원사업은 소규모 지원에 그치던 한국 무용계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대형 작품의 창작 작업 활성화와 지역 무용계의 성장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됐다. 전국무용제·서울국제무용제·한국을 빛내는 해외 무용스타 초청공연 등 민간 주도의 무용 페스티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역 무용계의 발전을 선도하고 춤의 국제교류를 활성화시켰으며, 국제 무대에 한국의 무용을 알리는 자극제가 됐다. 또한 문화 인프라 확충 정책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 세워진 문화예술회관의 수는 120개를 넘어섰다.

그러나 무용가들의 창작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정책이나 무용예술을 통한 국가 이미지 고양과 관련된 국제교류 정책 그리고 문화예술 생활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란 큰 목표에서 보면 정부의 문화정책은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지난 30년 동안 문예진흥원의 지원정책은 무용 사회의 환경적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일률적인 지원 방식을 시행해 왔다. 예술성 높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 재능이 있는 안무가와 그렇지 못한 안무

가 등에 대한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만큼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도 없었다.

국제교류 정책 역시 경쟁력 있는 무용 상품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 강화와 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서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한국의 무용을 국제무대로 진출시키려는 전략적인 정책도 부재했다. 국제교류의 내용 역시 공연활동에만 치중, 불균형을 초래했다. 국민들의 창의력 함양을 통한 국력 신장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예술교육과 관련 무용교육 정책 역시 부재했다. 인체를 매개로 하는 장르의 특성상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무용 교육은 무용 교과목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새로운 환경변화와 수요 전망

최근 한국 무용계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흐름에 비추어 향후 몇 가지 새로운 양상이 예측된다.

첫째, 무용 창작 활동과 관련, 전문 무용단과 우수 안무가의 작업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직업 무용단과 전문 무용단, 실력이 검증된 안무가들을 중심으로 양보다는 질적으로 예술성 높은 작업들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지역 무용계의 성장이 확대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창작 활동에 대한 욕구 증가로 인해 무용 공연장의 부족 현상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용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의 경우 대관 경쟁률은 평균 5대 1을 넘어서고 있다. 지원금을 받았으나 마땅한 공연장이 없어 취소하거나 해를 넘겨 연장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수입 확대를 염두에 둔 공공 공연장들의 인기 장르 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고양시키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해 온 무대예술지원사업은 소규모 지원에 그치던 한국 무용계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대형 작품의 창작 작업 활성화와 지역 무용계의 성장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됐다. 전국무용제·서울국제무용제·한국을 빛내는 해외 무용스타 초청공연 등 민간 주도의 무용 페스티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역 무용계의 발전을 선도하고 춤 국제교류를 활성화 시켰으며, 국제 무대에 한국의 무용을 알리는 자극제가 됐다. 또한 문화 인프라 확충 정책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 세워진 문화예술회관의 수는 120개를 넘어섰다.

주의 편중된 공연 기획 역시 무용 공연장의 부족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셋째, 무용교육과 관련, 무용 전문 인력의 현저한 감소 현상이 확대되면서 사회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대학 무용과의 미달 사태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일률적으로 운영되는 대학 교육이 특성화될 것이며 인성 교육과 사회교육 차원에서의 무용교육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더욱 많이 수용될 것이다. 특히 무용은 몸을 매개로 하는 장르의 특성상 어린이·청소년들의 창의력 개발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예술 장르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무용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며 그 양상 역시 보다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무용 시장 확대에 따라 한국 무용수들의 해외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고, 해외 유명 단체의 내한공연과 인적 교류가 다양화되면서 국제무대에서 한국 무용계의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후하다.

무용 부문 새 예술 추진 정책 제안

1. 우수 안무가 집중 지원 정책

예술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질 높은 작품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훌륭한 안무가의 양성을 완성도 높은 창작작업과 직결되며 국제무대에서 한국 무용계의 경쟁력도 그 만큼 배가시킬 수 있다.

2. 무용교육을 통한 어린이·청소년들의 창의력 개발 정책

학교 단위의 현장 무용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용 교과의 독립과 함께 전문 예술 단체들이나 예술가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공

연을 보여주고 함께 배워보는 프로그램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3. 해외 주요 도시에 한국 공연예술의 세계무대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확보

문화예술을 통한 국가 이미지 고양을 위해 뉴욕이나 파리 등 문화예술 중심 도시에 한국의 무용과 다른 예술 장르의 진출을 위한 공연장과 강습 시설 등을 갖춘 센터를 신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화 상품 수출을 보다 전략적으로 시도,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4. 비어있는 문화공간과 전문 춤 단체의 연결을 통한 문화공간 활성화 정책

전국에 시설되어 있는 문화공간의 저조한 가동률을 상주 단체 제도를 통해 활성화하여 지역 무용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생활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시킨다.

5. 공공 공연장의 어린이·청소년 공연 의무화와 입장료 대폭 할인 정책

어릴 때부터 공연예술 작품 감상을 통해 인성을 개발하고 미래의 잠재적 관객 개발을 위해 공공 공연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들이 자주 공연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이를 시행한다.

6. 공연장 대관 및 무대 스태프 양성에 관한 지원 정책

공연장 대관 시 공연 단체들의 리허설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고 우수한 무대 스태프들을 극장에 상주토록 하여 공연 작품의 질을 향상시킨다.

7. 우수 단체와 재능있는 젊은 무용가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정책

우수 작품의 레퍼토리화가 가능해질 것이며, 재능있는 젊은 무용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유능한 무용가 양성은 예술적인 작품의 완성도를 그만큼 높이는 작업이 된다.

8. 해외 한국 무용수들에 대한 지원 정책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출신의 무용수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무대 진출 활성화로 이어져 세계 무대에서 한국 무용계의 위상 강화와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9. 무용교사, 지도자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시행

우수한 무용 지도자 양성과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한 재능있는 무용수들을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10. 무용 전용 공연장 설립

다양한 무용 기획 프로젝트로 우수한 안무가의 양성과 춤의 대중화를 통한 관객 확보, 질 높은 작품을 양산할 수 있다.